

2014.12.27.PM7 <다시 봄> 3차 회의 @총여실
 참여: 혜운 다현 정운 건호 정인 지영 예지
 불참:
 지각:
 속기: 지영 - 정인 - 예지 - 건호 - 정운

3차 회의록

집행위원장	예지
총무/스폰 담당	지영
홍보/SNS	페이스북 지영, (다현) 트위터 예지, (정인)
디자인	정인, 건호
(월)성평등센터-여성신문	지영

0. 생활나눔

종강 축하합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이야기해보아요. 요즘의 관심사나 고민거리는 뭔가요!

* 건호를 위한 자기소개 테이블 *

- | |
|--|
| 1) 생일 2) 가장 좋아하는 음식 3)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나 영화 하나
4)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5) 나는 집행부를 왜 하게 되었는가 (선택사항: 거추차기) |
|--|

건호: 1월 16일 / 초콜렛(거울), 과일(여름), 단거 etc / 설탕 치히로의 행방불명, 인터스텔라(천문우주학과라서...) / 하기 싫은 건 하지 말자 / 선본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후보들이랑 아는사이이다 보니 듣게 되더라. 어차피 집행부도 같이 하게 될 것 같길래 그냥 마음 편하게 집행부를 하게 되었다.

정운: 12월 13일 / 다 잘 먹어요. 토마토파스타 좋아해요 / 인터스텔라가 최근에 봐서 기억에 남아요. 인셉션도 좋았어요. 타 일리프, SF 좋아해요., 책은 최근 <가가페미니즘>을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급진적이지만 재미있었어요 / 좌우명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선본원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연세지 하다 보니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집행부 하게 되었어요. 일년동안 새로운 것들 배우고 싶어요 / 고속터미널 역쪽에 사는데 5월에 양재역 쪽으로 이사가요.

생활나눔

- 건호: 부쉬드노엘을 만들었어요. 시험기간 이후로 폭 쉬었어요. 요즘은 다음 게임은 뭘 만들까 고민하고 있어요.
- 정운: 요즘 알바를 구하고 있어요. 카페 알바를 그만뒀서 새로운 걸 찾고 있어요. 고민거리는 여성주의를 배우다보니 불편해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고민이에요. 최근에 참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친한 사이라서 넘어갔다.
- 다현: 종강 이후 선거 뒤돌이를 했는데 많이 못 오셔서 아쉬웠어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감기가 악화되었고. 요즘 관심사는 거울이라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이라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간대요. 걸리지 마세요. (혜운: 걸린 사람은 오지 마세요.)
- 혜운: 종강을 하지 않았지만 종강을 해버리려 해요. 총여를 어떻게 재밌게 잘 해볼까, 사업계획 언제짜고 언제 집행하지...가 저의 관심사예요. 회의를 오늘 열심히 잘 해볼게요. 크리스마스에 이승철 콘서트 갔어요. 이승철이 콘서트할 때마다 제3세계 아동들에게 학교 지어주는 후원을 하더라고요. 리맨차드스쿨? 중동 어디 국가였다. 앞으로 지을 학교 등에 대한 PT를 했는데 세상을 바꾸려면 역시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돈 많은 영향력 있는 개인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 예지: 레포트를 썼다. 혜운이 안 쓴 그 레포트를 열심히 썼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 갔다. 초밥 먹었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이것저것 송년회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끝났어요~
- 지영: 조정부에서 스키캠프 갔다 왔어요. 여러 일들이 있었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일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 해결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동아리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해결과정을 보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단어선택, 내 태도 성찰하게 되었고. 신중하고 어려웠던 경험이다.
- 정인: 저번주 금요일이 마지막 기억이에요. 계속 몸이 안 좋았다. 오늘은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열심히 쉬었던 한 주였다. 크리스마스에도 열심히 갔다.

1. 활동 보고 및 상황 공유

12월 18일(목)

- 성평등센터에 방문해서 성폭력 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온 로리주희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 KSCRC(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 방문해 인사드렸습니다.
- 혜운: 고민하고 있는 사업의 기획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홍석천 씨 생각하고 있다고 했더니 남성동성애자 담론에 한정되는 걸 피하면 어떻게 하는 의견을 주셨고 틀에 박힌 강연이나 그런 거 말고 더 신선하고 좋은 기획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활동 전반에 대한 피드백도 주셨다. 지금은 그냥 LGBT 구분 없이 같은 판 안에서 눈감아주고 넘어가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 성폭력관련 좋았던 피드백은 가해자/피해자 중심으로 강조하는데, 그것보다 제3자의 입장에 대해 강조해서 성인지 교육하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다.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것과 제3자/목격자/주변인 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측면에서 보자는 이야기.

- 저녁 9시에 새맛단 세미나/성인지교육 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 슈퍼인싸들(?)이 술자리 문화 사례를 많이 보충해주었다.

12월 19일(금)

- 저녁 7시에 새맛단 정모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 총여학생회 집행부 모집 공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12월 22일(월)

- 겨울방학 세미나 홍보 자료를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 새내기 맞이 기획단&TFT 전체 회의에서 오전 11시~오후1시까지 성인지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혜운: 로리주희 선생님 강연 이후 발표를 했다. 피드백 받는 시간도 있었는데 열정적이었고 의견개진 해주었다. 반응은 좋았다.

- 25대(더호)와 26대 총여학생회가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 혜운: 총학 집행부 연대사업국에서 총여와 총학의 브릿지를 하고 싶은 분...도 있었다. 총에서는 기초 3개중 1개도 여성주의고 여 여성주의를 계속 강조한다. 그 여성주의가 방향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여성주의에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뭔가 더 해볼 수 있을 듯

-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12월 23일(화)

- 25대와 26대 총여학생회가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 국제캠퍼스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총무처 구매팀 항의방문 및 농성에 함께했습니다.

12월 26일(금)

- 오전 10시에 총학생회장, 사과대부학생회장랑 함께 새터 관련 대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1/3에 전 여성주의 총여에게 인수인계 받기로 했어요.

2. 증운위 안건 공유

2014.12.22. 1차 증운위 안건 공유	
논의안건	1. 자율경비 납부 독려 TFT 제안 현재 학생회비 납부율이 낮은 상태로, 총학생회장이 자율경비를 올려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학우들이 자율 경비를 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식을 고민하는 것과, 자율 경비 납부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총여학생회장이 증운위원들 뿐만 아니라, 자율 경비를 받는 언론이나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같은 단위들도 함께 TFT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단위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참여하는 단위: 부총학생회장, 생명대 정, 국제대 정, 사회대 정, 총동아리연합회 부
	2. 학생회칙 개정(장애인권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을 위한 임시 확대운영위원회(확대간부수련회) 안건 상정 논의 및 학생회칙 개정 TFT 제안 발제자 : 제51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장애인권 동아리 게르니카 회장/부회장 먼저 발제자가 52대 총학생회선거 공동공약으로 의결이 된 점과, 비상대책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가 회칙에 들어가야되는 당위에 대해 설명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권 위원회와, 비상대책 위원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장애인권위원회에 대한 논의 : 게르니카 회장단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하는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권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발제해주셨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 복지 확충, 인식 개선 및 맞은 확대, 아카이빙의 역할 등 게르니카와 센터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인권위원회에서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회칙 문구에 있어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장애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게르니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게르니카라고 명시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과, 게르니카라고 명시 해도 관계 없다는 의견으로 나누어 켜졌습니다. 이에 발제자가 장애인권위원회에 동아리 회장 또는 부회장이 1인으로 들어가고, 학생회 체계에서 장애인권 동아리를 인정한다면 게르니카라는 이름을 빠질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후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동아리라는 명칭이 앞으로의 장애 인권 활동을 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나오는 것을 경직 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여, 다른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발제자가 장애인권 동아리가 지금까지 활동해온 역사성과 활동성을 고려했을 때 동아리로 하는 것이 낫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자유전공회장, 상경대 회장, 교육대 부회장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낫다고 이에 대한 찬성 의견 내주셨고, 사회대 회장, 이과대 회장은 게르니카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대로 동아리 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다고 의견 개

진하였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장이 단체라고 이름을 쓰되, 단서조항을 다는 안을 제시했고, 이를 발제자가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되, 장애인권 동아리(게르니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라고 명시하고, 이 자치단체가 다른 단체와 구분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2)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논의 : 총학생회장이 회칙에 개선할 부분이 있음을 감안해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 상정을 하기 위한 TFT를 꾸리는 것 두가지를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 회칙 개선할 부분에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의 자격에 대해 명시할 것과, 재선거에 대한 내용, 재정에 대한 내용, 등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후 학생회칙 개정 TFT에 자원을 받았으나, 참여의사를 밝힌 단위가 적어 항 후 총학생회장이 개별 연락을 통해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하는 단위: 부총학생회장, 이과대 부

3. 2015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TFT 제안

발제자 : 제51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발제자가 현재 등록금 정세 및 등록금에 대한 학교측 입장에 대한 발제 진행했습니다. 이후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들어간 경험을 바탕으로 발제자 본인을 등심위 간사로 의결해 줄 것과,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등심위원 2명을 선정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질의 응답 후, 등심위 간사로 발제자를 의결하는 것에 있어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자원해주신 단위가 많아, 총학생회장이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등심위를 준비하는 회의체를 꾸리고, 회의체 안에서 등심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참여하는 단위: 총학생회장, 사회대 정, 총동아리연합회 정, 이과대 정, 교육대 부, 자유전공 정, 자유전공 부,

4. 제52대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 문제상황 및 대책마련

발제자 : 제51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발제자가 제52대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상황을 중선관위의 진상조사와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중선관위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선거 부정 사태에 대해 용의자가 2명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용의자들에 대해 학생사회 공식지위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려 줄 것과, 항 후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지에 대한 중운위 차원의 입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진상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선거를 가지 않고 무리하게 재투표를 진행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 이유에 대한 문선관위의 입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중선관위는 진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임에도, 중선관위가 사건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에 용의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공개한 것에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상규명이 더 이상 불가함에도 용의자를 공개한 것은 해당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 이후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를 구제할 방법도 없음을 강조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중운위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근거 중 부정선거로 인해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는 부분에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 부여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고, 중운위차원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미흡한 수사로 인해 다른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범행을 단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논의안건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신 문선관위원장과, 그 이후 새롭게 구성된 문선관위원장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가 1) 재투표를 진행한 것은, 51대 문과대학 학생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과대 학생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선관위가 중선관위에 자문을 구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했던 것이며, 2) 중선관위의 입장문에 대해서는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현직 경찰과 함께 침묵을 받아 법제 틀 속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만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대해 공개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입장문이 용의자를 한 명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장이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과,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중운위들의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문대 학생사회가 중운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문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중운위가 회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주 중운위에서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요청한대로 문선관위에 발제를 요청해 문선관위원장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 새내기세로배움터 방침에 대한 학생회 대응 논의

총학생회장이 교육부에서 학교측에 보낸 공문을 공유하고, 현재 학교측 입장과 교무처의 대응 방식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입장을 정하기 전에, 먼저 단과대별 새터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단과대별 새터 진행 현황을 공유한 후, 총학생회장이 각 단과대 학장에게 메일을 보내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입장문 작성 두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교육부를 대상으로 입장문을 쓰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다른 학교와 연대하여 쓰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상경대 회장이 새터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학생 자치활동을 제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장이 받아 들이고, 이번 교육부에 대한 입장문을 중앙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쓰는 것에 대해 요청하였고,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장이 입장문을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과대 차원에서 안전문제에 대해 노력을 해온 만큼 중앙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안전메뉴얼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고, 중운위 입장문을 쓰며 안전메뉴얼도 만드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단과대 학장에게 메일을 보내고 총학생회장이 함께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단위가 요청했을 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하는 단위: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사회대 부, 공대 비대위원장

[입장문 첫 회의] 구조의 문제 지적(입장을 규제해야 할 문제이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새터를 잘 하는 방향을 모색한 게 아니라 새터 자체를 금지한 점)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세종시

새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새터 새로운 문화 만들어 갈 공청회 등을 다른 학교와도 연계해서 1월 중에 하는 게 어떻가.

단과대 별로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중운위 입장문보다는 각각 대응하고 총이 힘을 실는 방향으로.

등이 논의되었다.

국검으로 가는 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학교로부터 식비나 숙박 등 비용을 지원받는다느 점이 있기도 하다.

6. 외국인글로벌학부 특별활동비 지급 논의 여부(계속)

발제자 : 제52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8대 외국인글로벌학부 학생회 대표

지난 0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에 더하여, 외국인글로벌학부의 체제와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과 그에 대한 논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글로벌학부를 학생회 체계로 인정할 지와 학생회비 지급 여부 : 외국인글로벌학부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과, 투표에 대한 기준, 외국인글로벌학부가 글로벌인재학부로 전환되는 시점과 향후 운영 방안, 외국인글로벌학부가 생활 공동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외국인글로벌학부의 대표는 선거로 선출되며, 2015년 1학기부터 외국인글로벌학부가 사라지고, 글로벌인재학부로 전환되지만 외국인글로벌학부에서 글로벌인재학부를 지원할 예정이고,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전공 진입 이후에도 워크샵 때 선배들과 1학년들이 함께 하는 등 어느정도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발제자가 답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글로벌학부가 중앙운영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지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총동연 회장과 자유전공 회장이 자유전공 학생회가 중앙운영위원회로 인준받은 맥락과 절차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대정에서 학생회의 자격, 역할 등을 돌시켜봤을 때 외국인글로벌학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이 학생회에 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내에서 소수자로 남지 않도록 문화적인 역할을 해온 부분도 크기 때문에 학생회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후 학생회비를 지급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2) 학생회비를 지급하는 방법 : 총학생회장이 학생회비 지급 방식에 대해, 발제에 들어온 대로 특별활동지원비로 지급 하는 방식과, 51대 총학생회가 잘못된 부분이 때문에 인수인계 받은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방식, 또는 일단 총학생회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이후 특별비 발제를 통해 총학생회 집행위원회가 돌려받는 형식 세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특별활동지원비는 자치단위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외국인글로벌학부는 학생회 체계로 봐야 하기 때문에 특별활동지원비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모였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받은 총학생회가 부담을 지고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과, 총학생회에서 운영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특별비를 통해 돌려받는 형식, 두 가지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의견이 모이지 않고 두 가지 안으로 나눠서, 총학생회장이 51대 총학생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후 학생회비를 분배할 때 외국인글로벌학부도 함께 논의를 하여

	학생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글로벌인재학부)
기타안건	1. 국제캠퍼스 기숙사 노동자 구조조정 대책위 활동 공유(계속) 총학생회장이 지난 국제캠퍼스 기숙사 노동자 구조조정 대책위의 활동 경과와, 노사 협의회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 72명이라는 현 인원을 노동력 공급 과잉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학교측에서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 요구한 적은 없고, 업체 선정 방식이 신촌캠퍼스와의 달리 최저임찰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세안텍스의 노사협의회 안에 총무처가 동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아직 총무처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제캠퍼스의 노동자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캠퍼스에서 함께 사는 구성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것으로 총학생회장이 마무리했습니다. 혜운: 72명 그대로 고용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안이 나왔다. 지금 근로시간은 8시부터 4시까지인데, 새벽부터 나와야 한다는 점이 있다. 정윤: 대책위에서 관련된 기자회견에 관해 들었다. 혜운: 중운위 차원은 아니고, 총여는 대책위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여해도 좋을듯 2.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재정구조 공유 총학생회장이 첨부자료와 함께 총학생회 재정구조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인준 받는 절차가 있는 것 처럼, 보다 투명한 운영과 학생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단과대 학생회에서 결산안 공유 및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3. 방학 중 일정 공유(계속) 방학 중 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일정 문제로 학운위 상건례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신입생 수강신청 날짜에 대한 질문, 총학OT 일정에 대한 질문, OT기간 기숙사 사용 신청 일정에 대한 질문, 기숙사 입사 날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현재 2월 24일이 신입생 수강신청일로 공지되어 있는데, 새터 일정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학생회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사용 신청 일정과 기숙사 입사 날짜를 확인 후 공유하기로 답변하였고, 오리엔테이션 기간 기숙사 사용의 경우 올해에는 무악1학사가 보수 공사 진행 중이라 예년보다 줄어 들 것 같아, 최대한 열여덜라고 요청한 상태인 것을 공유하였습니다.
공지사항	* 다음 회의는 12월 29일 13시로 정하였습니다. 1월 5일은 19시, 1월 12일 부터는 계속해서 14시 진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 총학생회 방학 중 재실시간은 11~18시입니다.

3. 방학 중 재실 시간 (12/29~2/27)

	월	화	수	목	금	기타
11~12	예지, 건호	예지, 건호	예지, 건호	예지, 건호	예지, 건호	혜운/다흰 가능할 때
12~13	예지, 건호	예지, 건호	예지, 건호	예지, 건호	예지, 건호	
13~14	예지, 건호	예지, 건호	예지, 건호	예지, 건호	예지, 건호	
14~15	지영, 정인	지영, 정인	지영, 정인	지영, 정인	지영, 정인	
15~16	지영, 정인	지영, 정인	지영, 정인	지영, 정인	지영, 정인	
16~17	지영, 정인	지영, 정인	지영, 정인	지영, 정인	지영, 정인	
17~18	지영, 정인	정인	지영, 정인	정인	지영, 정인	

4. 살림살이

(1) 신촌 총여실

- 저번에 논의한 비품을 어서 구매합니다. (제2차 회의록 참조)

혜운: 비품 구매해주세요.

다흰: 비품 리스트 카페에 올릴게요.

혜운(모두) : 그냥 다흰 마음대로 사세요.

- 정리할 날짜를 정합시다. 청소 당번도 정합시다.

28(일) 오전 11시

신촌 그랜드마트에서 만나요. 청소도구를 사서 하자.

: 예지 다흰 정윤 건호 (지영) (정인)

자기가 먹은 거 청소하기

페미니리 도서관도 개방할 수 있게 이불 개는 등의 정리.

[배치 희망사항]

- 정수기 물은 (월)에 온대요.
- 전동드릴이 있다면 파티션을 뿔으면 좋을 듯.
- 사무공간이 안 보이게.
- 들어오자 마자는 쇼파, 테이블 식으로 응접 가능하게.
- 도서관 가는 길에 있는 종이 널부러진 쇼파도.
- 파티션으로는 응접실과 사무 공간.
- 사물함 처분? 여부 생각해보자. 공간낭비가 심하고 쓰기 힘들다.
- 책장도 더 필요.
- 컴퓨터 자리 가능하다면 8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자.
- 컴퓨터는 쓸 수 있는 것은 2대지만,
- 가구가 없어도 배치만 해 보자.

(2) 국캠 총여실

- 방문 날짜를 정합시다.

1/3 (토) 2시 @송도 : 건호 정윤

총여실 어디인지 모르겠음.

51대 중운위 1학기 초 회의록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건호, 정윤 찾아보면 어때요?)

- 공간배치를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논의해봐요.
- 지금 있는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오면 될 것 같아요.
- 새로운 방을 받는 건 빈 방을 물어보고 받아야 할 듯.

5. 사업 및 논의 안건

*1년 사업계획 & 방학 중 사업계획 나눠서 짜기

- 30(화) 7시까지 해을 개요 (예지, 지영)

(1) 자궁경부암 백신

연락 왔어요. 미팅 날짜를 잡아야 함. 어떤 식으로 제안할 것인지 논의해봅시다.

-> 우리 기조는 여학생만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지양하기로 했고, 정치적으로도 이 사업의 지향과 우리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맞을 수 있는 것은 맞으니까, 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남학생도 자궁경부암 백신이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하면 좋겠다.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홍보는 포스터에 간략히 글을 쓰는 정도로. SNS 홍보할 때도 한 단락 정도 쓰는 식으로.

* 사업을 할 때 담당자를 정하면 좋겠다.

자궁경부암 백신 -> 다흰

(2) ‘섹시하다 이슬아’ 구호에 대한 합의
슬카라카 섹시하다 이슬아 우윳빛깔 이슬아
문대 때부터 있던 구호.

[문제제기 방안]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 수위를 계속 낮춰왔다.
자보 -> 입장문 -> ..
초반부터 총학과 대립해서 좋을 게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중운위의 불편한 점들]
중운위 모니터링 하니까 계속 권주사 시키는 것 등의 문제가 있다.
친숙한 척, 반말 강제 등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반말을 여성주의로 생각하는 것 등.
권주사를 강요하는 건 대표자로서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질 문제가 될 것이므로.

->
자보를 쓰는 것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려 했는데, 재밌게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불편한 점을 말하면 장난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중운위 문화에 대해 28일(일) 12시 식사&대화 해보려고 한다.
총학-총여 연계 이야기도 하겠다.

[우리의 입장정리]
테이블을 만들려면, 누가 참여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인지 얘기해보자.

정인: 문제적인 건 맞지만 총여가 입지도 않고 총학이랑 초반부터 척질 이유도 없는 것 같다.
혜운: 동의한다. 대외적으로는 하지 말자.
지영: 그들은 이미 이게 문제적인 걸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이다.
혜운: 통하든 안통하든 말을 해야하긴 한다.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텐데. 그 때 얘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정운: 테이블을 해서 이야기 하는 게 좋겠다.
다현: 발화 방식도 중요하다. 문제제기를 강하게 할지.
혜운: 토론을 할건지 좌담을 할건지 입장을 전달할지 항변을 들을지 등 논의해야한다.
다현: 같은 문제가 반복될수록 강도를 높이는 것도 좋겠다.
혜운: 연대사업국도 있고 총여와 여성주의 세미나 같이하는 것도 좋게 반응했었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왜 문제지 아셨는지 물어보고.

예지: 왜 그랬는지가 의미 없다. 그냥 재밌자고 했겠지만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혜운,정인: 그냥 이유를 물어보는 건 필요하다. 들어보고 심각성을 이야기해보자.
혜운: 그니까 테이블을 만들면 누가 참여할지도 중요하다. 일단 선본장, 후보들만 만나고 확산되게 할 것인지. 선거 참여했던 사람들 더 오게 할 것인지.
다현: 뭘 요구할지도. 정해야겠다.
혜운: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생각해볼 수 있고.
정운: 일단은 대표자들과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인: 자보랑 입장문까지 생겼었고 방법을 바꾸었다는 걸 전달하자. 우리가 테이블만 만들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걸 전달.
혜운: 방식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고민했다는 걸 전달하자.
건호: 그쪽 집행부 회의 때 발제를 하거나, 발제를 맡기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혜운: 대표자 테이블을 만들고, 일단은 우리랑 거기랑 회장단, 집장 이렇게 만나는 게 좋겠다.
혜운: 집행부 회의에 발제를 하려 하는 건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서서 이다. 그것도 하면 좋겠다.
다현: 중운위에는 굳이 전달할 일이 아니고, 활동보고 정도로 끝나면 좋겠다.
건호: 말이 잘 안 통하면 첨부자료로 입장문 붙이자.

1/5~1/11 사이에 시간되는 날 만나자.

1/9 오전 10시
1/10 오후 5시
제안해보겠다.

*담당자 : 혜운

(3) 여성주의 도서관 목록화 책 새로 구비

담당자 정하기. *예지
리스트 정리할 날짜 정하기.

지영: 생도에서는 학교 기준을 따르고 자체적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바코드화 작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저희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해도 될 것 같다.

다현: 지금 있는 생태, 노동 이런 분류를 조금만 더 정비해도 좋을 것 같다.

혜운: 몸 노동 생태 정치 등 분류를 어떻게 할지.

다현: 추천도서 등의 범주화도 좋겠다. 최신도서는.

(4) 국제캠퍼스 여성주의 자치도서관

담당자 정하기. 공간 알아보기. 연계할 수 있는 단위 알아보기.

지영: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공간을 먼저 알아봐야겠다.
혜운: 만드는 건 총여가 만들어도 운영위원은 따로 뽑아야 할 것 같다. 총여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대 자도 처럼.
지영: 운영 예산은 총여 예산에서 떼 주면 될 것 같다.
혜운: 총여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회칙을 만들 수도 있겠다.
혜운: 만드는 건 괜찮은지, 현실성은 있는지 검토해보자.
지영: 그러나 1학년들이 주로 관리주체가 될텐데. 신촌-국캠 사이에 인수인계도 끊어지고, 걱정된다.
정운: 도서관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이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유인이 없을 것 같다.
혜운: 유인이 없으면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면 될 것 같다.
다현: 저는 조금 비관적이예요.

정운: 저도.
예지: 나중에 논의하면 공간확보가 어렵지는 않을까?
정운: 공간 확보보다는 총여실 자체를 도서관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다현: 지영이 지적했던 바로 단절되는 상황이 걱정되긴 한다. 2,3,4학년 있는 생도나 자도도 부도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지가 너무 불투명하다. 돈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정운: 국캠에서는 자치활동이라는 자체가 매력이 없다.
다현: 학사일정도 타이트하고.
정운: 신촌에 가서 뭘 하면 했지 국캠에서 굳이 뭘 할 이유가 없다. 동아리를 한다고 해도 신촌에서 하려는 생각이 많다. 잠 시 있다 갈 곳이니까.
지영: 동연의 방도 국캠에 분배해놨는데 비어있다. 가끔 이용할 뿐.
혜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신촌 총여실의 페미니리도 활성화된 적이 없다. 책도 많고 공간도 좋아도.
지영: 그래도 여기는 관리할 사람이 있다.
혜운: 관리는 총여가 할 수도 있다.
지영: 1학년 총여집행부, 국캠 상주인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혜운: 욕심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5일내내 재실하는게 아니라 하루이틀만 재실할 수도 있고.
다현: 도서관이라는 게 필요할 때 책을 빌리는 의미가 있다. 차라리 언기도 책 확충을 말할 수도 있다.
혜운: 확충은 요구할 필요 없고 그냥 국캠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인: 다른 자치 도서관이 있나요? 처음 자치공간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정윤: 없어요. RA, RC 프로그램을 접하기도 하는데, 메리트도 없고 잘 안 간다. 자치활동 성격이 있는데. 잘 안 한다. 거의 망했다.

지영: 차라리 RA들이 성인지교육하는 데에 책을 지원하거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책이나 잡지 등의 비품은 못 사니깐.(소모품만 살 수 있다). 커리를 짜거나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혜운: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정윤: RA도 잘 안되는데 자치도서관은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유인도 없다는 의견이다. 차라리 단발성 세미나로 건강한 야식을 들고 와서 이벤트성으로 여성주의 세미나 하는게 나을수도 있다.

지영,다흰 : 포럼,세미나 한번 더 하자.

정윤: 얼굴이라도 기억해서 신촌오면 페미니터리 도서관 오게. 국캠 자체에서 지지기반 만드는 건 매우 힘들 것이다.

다흰: 공간을 유지하는 동력이 내가 재생산하고 유지하면 2,3학년 때에도 도움이 된다는 원동력이 있을 텐데. 정윤 말대로 국캠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일년하고 떠날 곳이니깐.

정윤: 공간에 대한 애착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느낀 건 13은 향수를 느끼며 돌아오기도 한다.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없다. 14들은 일년만 있고 떠난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 13은 한 학기만 있다가 가니까 향수를 느낀다. 공간에 애착도 없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 같다.

지영: 13년엔 RA가 관찰게 운영되는 하우스가 있긴 있었다. 14년엔 교수님도 많이 바뀌고 거의 망했다.

정윤: 국제캠퍼스는 학생들도 물론 그렇지만, RA와 교수님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RA가 자기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럴 환경도 아니다.

• 여성주의 자치도서관은 일단 폐기하자. 공간 확보도 일단 폐기하자.

LT(11~12)때 국캠을 하나의 폭지로 이야기해보자. 정보격차도 있고.
-> LT 때 국캠을 주제로 발제 (지영 정윤)

혜운: 언기도에 여성주의 책을 요구하는 건 어떨까?

정인: 전체적 책에 비해 여성주의 책이 없는 건지 알아보기도 해야 한다.

예지: 우리가 국캠에서 뭘할지에 관한 얘기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세미나나 포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혜운: 그렇게 하자. 책은 사실 신청하면 주기도 하니깐.

(5) 여휴 이불 받기 사업

<페미니즘의 도전>, <남성성과 젠더>,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젠더와 사회> 책 구매했습니다. 다른 상품은 뭘줄지 논의. 생리대 줄까 생각중인데 그럼 업체에 연락해서 스폰서 받아야 할 필요 (지영이 전화하기) → 수정 필요.

집이 가까워야 들고 오기 쉬운데 자취생들은 이불이 없다. 집이 멀면 이불이 있어도 가져오기 힘들다. 차라리 이불에 한정짓지 말고 이불, 담요 함께 하자.

건호: 더호 담요가 한 두 개씩 들어올 것 같다.(ㅋㅋ)

혜운: 돈을 좀더 쓰는 쪽으로 하자. 우리는 그냥 총여실에 오려는 유인을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여휴 담요에 대한 인식을 만 들고.

(6) 여휴 목록화

*담당자 지영
원래 비치했던 담요개수 알아보기(혜운)
여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봐야 겠다. 위치/개수파악은 호에게 물어보자 (혜운)

[지영이 할 일]
지금 있는 담요 개수 체크
다니면서 BEFORE 사진을 찍자. (여휴 재정비 사업도 해야하니깐.)
비품 등도 체크해서 리스트업

차후에 분실률/도난률 체크해서 정보를 제공하자.
정인: 19대 총여학생회 수첩 에 정보가 있다.

•장기적 여휴 담당자 선정 : 지영
단과대 컨택하는 등의 일을 모두 맡겠다.
단과대 집행부가 남자밖에 없으면 총여가 관리하자.

혜운: 여휴를 총여가 맡아야 하나 의문이 든다. 학교가 마련한 공간인데. 학사처에서 해야하지 않을까?
다흰: 청소는 노동자분들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지영: 단대별로 여학생회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혜운: 단과대 여학생회가 많이 생기면 좋을텐데.

• LT에서 이야기해보자. (단과대 여학생회에 관해.)
여학생회나 여학생국이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7) 세미나 커리큘럼 짜기 및 홍보

혜운: 초안을 예지가 짠었는데 구체화해야겠다.

지영: 계절학과 겹쳐서 참가자가 별로 없다.

다흰: 포스터가 좋다는 의견과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화 하는 불편함에 대한 의견 / 세시간 세미나가 길다는 의견이 많다.

지영: 5-7시 해서 끝나고 저녁 먹거나

다흰: 6-8시 해서 저녁 간단히 먹고 자기소개 한 뒤 세미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뒤풀이하고 가볍게 하는 게 어떨까. 한 명만 신청했으니까 그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 못 맞추면 착오를 사과하고 책 등을 드리든지.

예지: 우리의 타겟이 계절듣는 사람은 아니었다. 일학년도 계절을 많이 듣나?

지영&다흰&정윤 : 요즘은 일학년도 계절을 거의 다 듣는다.

혜운: 5-7시로 바꾸고 7시에 같이 식사하는 걸로 바꾸자.
다흰: 배고프면 먹을 거 가져오라고 하고. 우리가 다과도 준비하고.
정인: 세미나별로 참석을 받는 건 어떨까?
혜운&다흰 : 좋다.
예지: 그리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장벽이 낮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좋을 듯.

•세미나 5-7시. 끝나고 저녁식사 제공 강조. 밥은 총여에서 제공. 세미나별로 참석.
자보는 그대로 하고, 글을 더 친절하게 쓰자.
집행부 모집처럼 옆으로 넘기는 거 짧게? (카드 같은 형태)

• 커리큘럼 구체화 (혜운, 다흰, 예지)

홍보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보자.
도메인 이제 신청했는데.

혜운: 토일레터 할까?
일동 : 좋긴 한데.... 불이는 부담도 있다.

혜운: 와이섹에 올리는 게 좋겠다.
정윤: 와이섹 홍보 효과로 충분한 것 같다.
혜운: 방학때 와이섹을 들어가나?
다흰: 계절학기를 들으면 당연히 들어간다. 매일매일.

~~혜운: 아마 올라간 홍보를 재공지 해야 한다. 이번 주말 안에.~~

~~—자보 수정 (정인)
—아마 신청한 분께 상황설명 & 시간 바꾸기 연락 & 안 되시면 경성스러운 사과 및 선물(?)
—오늘(27일) 밤까지 (다현)~~

~~선물은 책은 취향을 타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돈으로 사과하는 느낌도 있다. 뭔가를 주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있는데 바꾸는게 말이 되나?

-> 시간을 바꾸지 말자. 일단 홍보를 해보자. 사적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그냥 다음 번에는 계절 안 겹치게 하는 걸로 하고.

카드 웹자보에 넣을 내용 : 다현
카드 웹자보 만들기 : 정인
와이섹에 올리기 : 혜운

(8) 집행부 모집

집행부 지원 1명 - 이민경

28(일) pm7:30 집행부 면접
혜운, 예지, 정인 @총여실

* 면접 질문?
예지: 면접의도는 무엇인가
혜운: 많이 지원하면 걸러내려고.
예지: 많이 지원한 상황이 아니면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거 좋겠다.
혜운: 그래도 한 두 개 질문이 있으면.

- 자기소개 / 지원 동기
- 하고 싶은 것 / 기대되는 것
- 활동 가능 기간
- 집행부에서 담당하고 싶은 일?
- 정책자료집에 없지만 제안하고 싶은 것들

다른 한 분도 집행부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취준생이라 일정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게 걱정된다.
회의 불참이 계속되면 소통이 어려워지고 그것도 또 일이다.
7시 회의라도 매주 올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집행부 공식 모집 기간은 끝났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사적네트워크로 물어보자.
~1/6 전까지만 각자 주변에 할 만한 사람에게 제안해보자.
무조건 LT는 같이 갈 수 있도록.

* 재학생이 아니어도 할 수 있나.
우리는 좋은데...

* 15학번 들어오니까 3월 중에 한 번 더 모집하자.
혜운: 그래서 RA가 집행부하면 좋다.

정윤: 단체 오티 같은 거 할 때 잘 인식시키자.

(9) 명함
혜운: 명함이 필요한가요?
지영&정윤: 있어도 필요가 없겠다.
예지: 어디 가서 주면 좋긴 할 거다. 연락 달라고.
혜운: 어차피 인쇄비만 들어요.
지영: 1인당 2만원 정도.
정인: 종이의 질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긴 한데.
혜운: 여러 번 맡겨도 가격 차이가 없을 거 같다.

* LT때 국 나누고 직책 정하고 그 이후에 명함을 뽑자.
-> 그럼 일단은 혜운,다현,예지(집행위원장) 만.
다 뽑긴 하는 걸로!

폰번호, 영어이름, 알려주세요 (예지->혜운)

(10) 서경지부 청소노동자 교섭안 논의 필요
달이 함께 하고 있다.
30일 회의때 말해봐요!

(11) 탁틴내일
다현: 건전한 성문화 / 반여성적인 여성주의 / 성 업속주의 적 지향을 가진 단체로 보임
성폭력 인식 개선을 하기는 한다.
내일신문. 미혼모, 10대 이슈, 학내에서 연계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가는 분야도 있긴 한데.

혜운: 미팅을 하는데, 99학번 선배가 권유하셨다.
다현: 청소년 중심은 우리랑 맞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혜운: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단 초대를 해주셨다는 게 중요하다.
다현: 우리가 할 게 없는데 가서 그쪽 시간 낭비하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혜운: 돈이나 자원이 있는 곳이다. 스폰이라도 요청할 때라도 통해서 요청할 수 있거라도 하다.
혜운: 미팅이라도 갈까요 말까요 / 30일 오전 10시, 다현 혜운 둘다 시간 안 된다.

-> 완곡히 거절 : 시간이 안 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상 없다고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혜운)

(12) 백양로 법적 대응을 제안 받았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것, 소음, 안전,
등 받은 피해에 대해
집단 소송 등을 하려 한다.
고소는 최후 수단이고 학교에 일정한 요구를 하겠다는 것.

지영: 그렇게 하면 완공이 늦어진다.
혜운: 빨리 끝내면 좋지만, 그동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희생 받는 것.
다현: 법적 언어로 개인적 고통을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혜운: 개인적 요구가 결집된 것도 없고, 그냥 일단 타협테이블 만든다는 것.
다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어렵다.
혜운: 총여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학이나 중운위에 제안을 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역량도 명분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게 사실이니까.
발제조차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영: 백양로난장이 때부터 반대도 흐지부지 되었고 공사가 끝나가는 마당에 그래야 할까

혜운: 실제로 공사는 일년 정도 남아있다.
 지영: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데, 집단대응을 하려면, 그게 될까 모르겠다.
 예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전문성보다는 학생으로서의 어떤 위치와 목소리 아닐까
 정윤: 중운위에 발제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던져서 논의해보는 건, 참여 하셨던 분이 얘기해주신 건 그냥 우리를 통해 전달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다현: 중운위에 발제하면 발제한 사람이 주로 업무를 가져갈텐데 다른 사업에 투입할 역량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
 지영: 입증도 어려울 것 같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익제기 주체는 누가되는 것일까?
 혜운: 총학에 제안을 할 것인지, 중운위에 발제 형태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비공식적으로 총학에 제안할게요.
 지영: 저는 반대해요. 타당성을 잘 모르겠어요. 소송으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혜운: 문제제기나 권리찾기의 측면, 소송으로 꼭 가지 않을 수도 있다.

• 합의가 잘 안되니 30일에 다시 얘기해봐요.

(13) 내부세미나
 • 30일 회의에서 정할까요?

(14) 홈페이지 구성
 초안 - 정윤 ~(화)
 이전 총여나 다른 홈페이지 참고

(15) 한인철 (동아리,총여학생회,자치단체 담당자)
 010-2995-0511

(16) 비밀번호 바뀜요

그 외

[중운위일정 관련]
 29일 중운위 이후 상건례, 다현 오면 좋을듯
 1/5 7시
 그 다음주부터 꼭 2시
 19일은 중운위 없음

1/3 점심 인수인계

[성인지교육] 새터/OT 중 하나 -> OT
 오티때 못 하는 단위를 새터때 하면 될 듯
 혜운: 총학OT때 하는 게 힘은 안 들지만, 단과대에서 하면 집중과 교육이 잘 되고 단대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불가능한 일정이 아니면 단과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새터는 그래도 가서 강의는 안해도 인사는 드려야 합니다.

[별첨] 방학 일정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기타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pm7 다시봄 2차회의	pm12 학생처	(미정) ksrc 미팅 pm7 새맞단 세미나팀 회의	pm7 새맞단 정모팀 회의 pm9 소영-혜운 인수인계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성평등센터미팅

am10 새맞단TFT 기획단 면접 +회의 pm7 다시봄 3차회의	pm2:30~pm7:00 워크샵 뒤풀이 따로 pm7 1차 중운위 pm 7:30 선본 뒷풀이 @슬로비 10시 새맞단 전체 (기획단 및 TFT) 회의	am 9:30~pm7:00워 크샵 @브이스퀘어 뒤풀이 전체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학생처미팅 생협미팅 1년 사업계획 여성단체연락 1월 초에 호 이전 총여와 인수인계
12/28	12/29	12/30	12/31	2015/1/1	1/2	1/3
am9 새터 입장문 작성 pm2 새터 대응 회의	pm2 2차 중운위 및 학생처상건례	am10 성폭력대책위 및 업무 인수인계 pm7 다시봄 4차회의		신청	pm6 연석중운위	pm3 새맞단 회의
1/4	1/5	1/6	1/7	1/8	1/9	1/10
	pm7 3차 중운위	pm1 새맞단 1차정모 pm7 다시봄 5차회의	pm2-5 새내기세미나 @자도	pm7내부세미나	pm7내부세미나	pm12 내부세미나
1/11	1/12	1/13	1/14	1/15	1/16	1/17
다시봄LT pm12 청량리역 ->청평	다시봄LT pm2 4차 중운위	다시봄 6차회의	pm2-5 새내기세미나 @자도		중운위 LT 첫날 성인지교육 2시간 각 단위 소개	
1/18	1/19	1/20	1/21	1/22	1/23	1/24
		pm1 새맞단 2차정모 pm7 다시봄 7차회의	pm2-5 새내기세미나 @자도	확대간부수련회 첫날 성인지교육 2시간 황금명륜		
1/25	1/26	1/27	1/28	1/29	1/30	1/31
	pm2 5차 중운위	pm7 다시봄 8차회의 정시생 합발	pm2-5 새내기세미나 @자도			
2/1	2/2	2/3	2/4	2/5	2/6	2/7
	pm2 6차 중운위	pm7 다시봄 9차회의				
2/8	2/9	2/10	2/11	2/12	2/13	2/14
	pm2 7차 중운위	pm7 다시봄 10차회의	~오티(9일~12일) 총학 오티는 9~11일			
2/15	2/16	2/17	2/18	2/19	2/20	2/21
	pm2 8차 중운위	pm7 다시봄 11차회의	구정			
2/22	2/23	2/24	2/25	2/26	2/27	2/28
	pm2 9차 중운위	pm7 다시봄 1차회의		입사, 하우스 OT (가)		

OT, 새터 중
하나만 성인지
교육 하면
되는데 가능한
오티로 갈 것.
각 단위 연락
취해서 날짜
잡아야 합니다.
강사 분
섭외해서 강의
1시간, 총여
오티 30분.